



그 많던 원숭이는 다 어디로 갔을까?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컬럼니스트
lovenat@hanmail.net



거대한 중국과 러시아 대륙에 연이어 있고 반도의 지형으로 인해 생물학 다양성이 세계 어느 곳보다 풍부했던 고대 한반도에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던 원숭이가 없었다는 건 한반도 생물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이다. 이 사실을 픽션화 했다.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에도 원숭이가 많이 살았습니다. 열대지방에서 우연히 태풍으로 떠내려 온 원숭이 한 쌍이 정착하여 온 산하에 원숭이가 아주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응력이 강했습니다. 나무위에서도 땅위에서도 어디서나 자유로이 살 수 있었고, 풀과 나무 잎부터 고기까지 어느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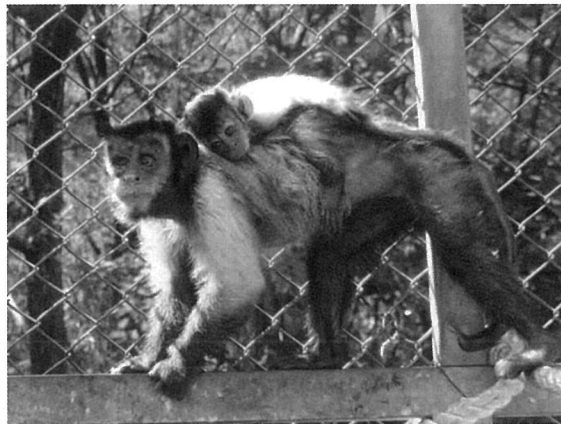
어떤 원숭이들은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도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과 친해져 버린 몇몇 원숭이들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가끔 시장 한복판에서 재주넘기를 하여 즐거움과 돈을 벌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친구는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많이 사 주었습니다.

원숭이들은 적응력도 강했지만 모험심도 강해서 의욕이 넘치는 몇몇 원숭이들은 자기 조상들이 우리나라에 온 방식으로 통나무와 해류에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무리를 이루기도 했고 중국의 원숭이들과는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혈연 관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원숭이들의 지능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거의 어린아이 수준과 비슷해서 분명 다른

동물들 보다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세상의 질서는 사람이 잡아가고 자연의 질서는 원숭이가 잡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평화로운 공생 관계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원숭이들은 사람처럼 사회를 이루고 살면서 그 안에는 각각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무리사이에도 힘과 수에 따라 역시 지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무리에는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물론 힘도 세야 하지만 그보다는 지혜로운 수컷이 모두의 동의를 얻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두머리 원숭이는 힘보단 지혜와 사랑으로 무리를 다스렸으며 적이 나타나면 항상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 수컷 우두머리 중에는 전국의 원숭이들의 대표격인, 사람으로 치면 왕의 지위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컷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수컷은 워낙 지혜롭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원숭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원숭이를 한번이라도 보면 '멋있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이 원숭이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드디어 사람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욕심 많고 포악하기로 원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 왕은 감



히 원숭이 주체에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군사를 풀어서 당장 그 원숭이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사람들이 잡으러 오자 도망치지도 않고 반항도 없이 태연하게 잡혀갔습니다. 왕은 말을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네 죄를 고백하라!'고 욕박을 지르고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못하자 감히 왕을 모독하고 역적모의를 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꿩을 가마솥에 넣어 사형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 원숭이가 그렇게 죽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 임금도 한층 더해서 전국의 원숭이란 원숭이는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일 이 소탕작전에 동원된 군사들은 칼과 화살로 무참히 원숭이들을 죽였습니다. 이 난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친 원숭이들도 있었지만 이들 역시 표범에게 물려죽고 굶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자 산에 있는 원숭이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드디어 이 나라에는 단 한 마리가 원숭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없어지자 대륙으로부터 무서운 호랑이와 표범, 곰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맹수들은 예전에는 원숭이들의 영리함에 항상 당해서 결코 이렇게 많은 수가 이 땅으로 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산에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무서운 동물들이 사람이 산에 오르지 않자 마을까지 내려와 가축과 사람들을 헤치고 다녔습니다. 마치 보라는 듯 거대한 호랑이가 임금이 사는 대궐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 동안은 사람들은 바깥에도 나가 지 못할 지경이 되었지만 이 맹수들도 차츰 자기들끼리 세력다툼을 벌여서 일정 수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대륙으로 몰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질서가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산에는 혼

자서는 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려 무장한 장정 열사람이 모여야 겨우 산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원숭이가 없어지면서부터 생긴 일입니다.

원숭이가 보이지 않게 되자 아이들은 함께 놀던 친구가 없어져 하루 종일 심심했으며, 어른들도 마치 가까운 친구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늘 허전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편 일본으로

건너간 원숭이들은 기후에 잘 적응하여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역시 옛날의 우리나라에서처럼 사람들과 즐겁게 공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탈출한 동료에게서 우리나라의 비참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들의 후손들은 아예 그들의 근원까지 일본 진출 알고 살게 되었으며 이 원숭이들은 요즈음은 세계적으로 '일본원숭이'라 공식적으로 불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그 왕의 명령으로 원숭이에 관한 모든 역사문화기록이 모두 불태워져 버려 더 이상 한반도 원숭이에 대해선 기록 속에서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버렸습니다. 비록 왕이라지만 한 사람의 원한과 욕심에 의해서도 하나의 위대한 생물종이 멸종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을 누리는 사람들은 생물들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야 할 책임도 아울러 지녀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fin~